

2014 경기도 수원지역 학원 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인권 상황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원 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정 : 11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 경기민언련 시루봉 (장안문 근처)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다산인권센터 / 새벽빛장애인야학공동체 /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 인권교육 '온다' /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 전교조 경기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 오늘의 일정 ■

진행 순서	시간	
여는 인사	5분	진행자
발제 :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사점	20분	공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
토론1 청소년 : 맞을 만한 짓은 없다	10분	하루유키 (학원에 다닌 적 있는 청소년)
토론2 교사 : 수원지역 학원에서의 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원고	10분	정경수 (수원 유신고등학교 교사)
토론3 학부모 : 폭력한국-부모들은 불안하다	10분	안기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토론4 인권활동가	10분	난다 (인권교육 '온다')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0분	진행자

■ 결과보고서 목차 ■

I. 조사의 목적 및 개요	1p
II. 조사 결과 분석	2p
III. 토론문 : 청소년	11p
토론문 : 교사	13p
토론문 : 학부모	15p
IV. 참고자료 : 인권 기준 및 관련 법률	16p
설문지	18p

I. 조사의 목적 및 개요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보장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경기도 수원시의 학원 폭력(체벌, 언어폭력 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동안 학생인권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그나마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학교 안에서의 체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체벌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기도와 같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직접 때리는) 체벌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또한 체벌이다. 뿐만 아니라, 체벌 문제는 학원, 가정 등에도 해당되는 보편적인 아동·청소년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훈육·교육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는 인식은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덜 된 사람, 인권을 침해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체벌과 같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폭력의 재생산을 낳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 문제,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인권 수준, 마땅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손꼽히고 있는 학원에서의 인권문제를 지역에서 최초로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체벌 문제를 중점에 두고 실태를 알아보며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도 함께 살펴본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래는 이번 실태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기간 : 2014년 10월 4일 ~ 10월 25일

조사방법 : 수원 학원가 및 수원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임의 설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

◎ 설문 응답자

연령대	응답 수
초등1~3학년	0
초등4~6학년	26
중학생	100
고등학생	130
무응답	45
총합	301

학원 소재지	응답 수
수원시 권선구	18
수원시 영통구	60
수원시 장안구	158
수원시 팔달구	28
무응답	37
총합	301

◎ 표본 301명에 대해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오차범위 약 ± 5.6%

II. 조사 결과 분석

1.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

최근 1년간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습니까?		
	응답 수	백분율
거의 매일	10	3.3%
일주일에 3번	9	3.0%
일주일에 1~2번	12	4.0%
한달에 1~2번	5	1.7%
아주 가끔	40	13.3%
전혀 없다	225	74.8%
총합	301	100.0%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폭력 중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일에 모두 표시			
	응답 수	총 응답 수 중 %	응답한 94명 중 %
기합 (예 : 옆드려뺨쳐, 팔굽혀펴기, 손들고서있기 등)	40	21.3%	42.6%
회초리 등 도구로 때림	45	23.9%	47.9%
손, 발로 때림	33	17.6%	35.1%
머리를 때림 (꿀밤 등 포함)	48	25.5%	51.1%
기타	22	11.7%	23.4%
총 응답 수	188	100.0%	

학원에서 어떤 경우에 자주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이 이루어집니까?			
	응답 수	총 응답 수 중 %	응답한 98명 중 %
떠들어서	40	18.5%	40.8%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67	31.0%	68.4%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서	35	16.2%	35.7%
지각 또는 결석	43	19.9%	43.9%
기타	31	14.4%	31.6%
총 응답 수	216	100.0%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을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응답 수	총 응답 수 중 %	응답한 70명 중 %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17	15.2%	24.3%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10	8.9%	14.3%
교육청에 신고했다.	10	8.9%	14.3%
경찰에 신고했다.	10	8.9%	14.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냥 넘어갔다).	51	45.5%	72.9%
기타	14	12.5%	20.0%
총 응답 수	112	100.0%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모님(보호자)이 알고 있습니까? (체벌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응답 수	응답자 69명 중 %
알고 있다	29	42.0%
모르고 있다	9	13.0%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른다	31	44.9%

- 최근 1년간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74.8%이다. 나머지 25.2%, 약 4명 중 1명은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1달에 1번 이상 체벌을 겪는 비율은 약 12%였다.

- 체벌 방식 면에서는 머리를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린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기합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기타 답변에는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테이프를 얼굴에 붙였다는 등 굴욕적인 체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체벌의 이유로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을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원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것이 두 번째로 꼽혔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했다는 학원생들도 많았다.

- 체벌을 당한 학원생들 중 대다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조치에는 학원을 그만두거나 사적으로 다투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특히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어떤 조치를 취한 학원생들이 다른 조치도 함께 취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학원생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넘어가며, 일부 학원생들만 항의하거나 대처할 수 있었다.

- 학원에 체벌이 있다고 답한 경우 중에서 보호자들 중 상당수, 약 40%가 학원에서의 체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학원에 보내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호자와 학원생이 잘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2. 학원에서의 언어폭력

최근 1년간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습니까?		
	응답 수	백분율
거의 매일	5	1.7%
일주일에 3번	10	3.3%
일주일에 1~2번	15	5.0%
한달에 1~2번	7	2.3%
아주 가끔	41	13.6%
전혀 없다	215	71.4%
무응답	8	2.7%
총합	301	100.0%

학원에서 어떤 경우에 자주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이 이루어집니까?			
	응답 수	총 응답 수 중 %	응답한 83명 중 %
떠들어서	49	25.1%	59.0%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50	25.6%	60.2%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서	33	16.9%	39.8%
지각 또는 결석	38	19.5%	45.8%
기타	25	12.8%	30.1%
총 응답 수	195	100.0%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을 당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응답 수	총 응답 수 중 %	응답한 78명 중 %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28	15.8%	35.9%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26	14.7%	33.3%
교육청에 신고했다.	24	13.6%	30.8%
경찰에 신고했다.	26	14.7%	33.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냥 넘어갔다).	48	27.1%	61.5%
기타	25	14.1%	32.1%
총 응답 수	177	100.0%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모님(보호자)이 알고 있습니까? (언어폭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응답 수	응답자 74명 중 %
알고 있다	19	25.7%
모르고 있다	21	28.4%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른다	34	45.9%

- 학원에서의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비율은 체벌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오차 범위 이내이며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한 달에 1~2번 이상, 높은 빈도로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는 12.3% 정도였다.

-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에서도 대다수 학원생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체벌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원생들이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응답을 했다. 기타 응답에서는 학원을 그만뒀다거나 연장을 벌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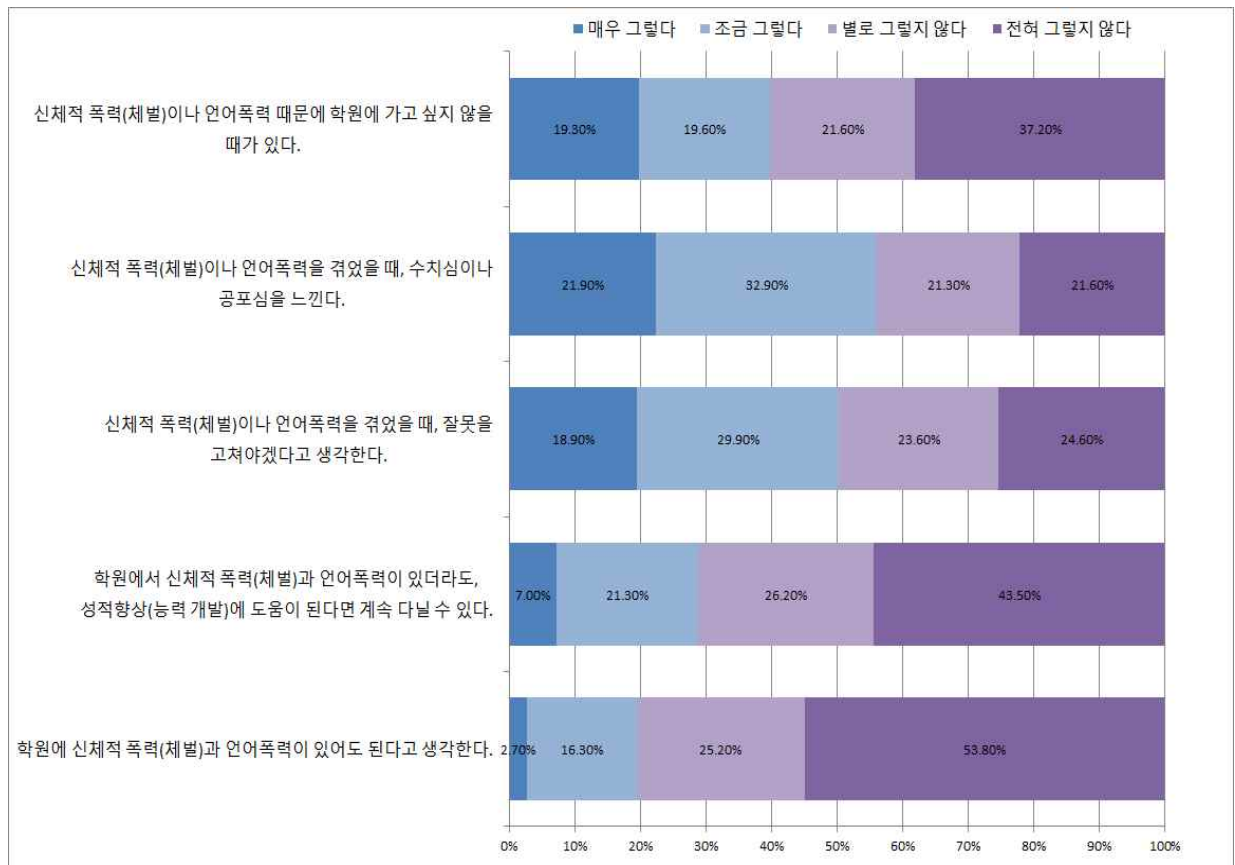
- 학원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자들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 학원생들은 언어폭력을 겪은 경우 일일이 보호자와 상의하거나 이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생각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생각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총합
학원에 신체적 폭력(체벌)과 언어폭력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 2.7%	49 16.3%	76 25.2%	162 53.8%	6 2.0%	301 100.0%
학원에서 신체적 폭력(체벌)과 언어폭력이 있더라도, 성적향상(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다닐 수 있다.	21 7.0%	64 21.3%	79 26.2%	131 43.5%	6 2.0%	301 100.0%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겪었을 때, 잘못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	57 18.9%	90 29.9%	71 23.6%	74 24.6%	9 3.0%	301 100.0%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겪었을 때,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낀다.	66 21.9%	99 32.9%	64 21.3%	65 21.6%	7 2.3%	301 100.0%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 때문에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58 19.3%	59 19.6%	65 21.6%	112 37.2%	7 2.3%	301 100.0%

- 응답자들 중 약 80%는 학원에서 체벌과 언어폭력이 있어도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약 70%는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도 계속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원생들이 학원에서의 체벌이나 인권침해에 상대적으로 더 순응적이라는 일각의 통념과는 다른 응답이다. 학원생들은 학원에서의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기보다는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쉽게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훈육의 목적으로 썼을 때, 잘못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은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것은 18.9%에 그쳤다. 24.6%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폭력 등이 과연 교육 수단으로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4. 기타

학원을 다니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입니까?		
그렇다	186	61.8%
아니다	37	12.3%
잘 모르겠다	71	23.6%
무응답	7	2.3%
총합	301	100.0%

- 응답자들 중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학원에 다닌다는 경우가 12.3%였다. 또한 학원을 자신이 원해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6%로 상당히 높았다. 약 40%는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요 또는 주변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학원에서의 그밖의 인권침해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학원에서 일어나는 그 밖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원생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것이나 강제로 남기는 것,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것, 주말에 강제로 불러내는 것을 많이 꼽았다. 일부 학원생들은 특정 학원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를 옮긴 것이다.

- 세종학원 : 체벌 동의서를 받음.
- 세종학원=동물사육관. 매일 언어폭력, 구타, 익숙할정도. 세종학원에 익숙해짐 법적 제제를 원함
- 쉬는시간이 없어요.
- 자신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남아서 숙제를 시키는 행위
- 정해진 (수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
- 숙제를 안했다고 남김,
- 주말에 강제로 불러서 강제자습을 시킨다,
- 밥먹을 시간을 안 준다,
- 밥을 못 먹게 할 때
- 애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
-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다. (심함)
- 남녀를 차별해서 대우한다.
- 테이프로 얼굴을 막 붙임.

5. 조사 결과

이전의 다른 조사들을 참고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체벌을 자주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여전히 학교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교사들 중 1명이라도 체벌을 할 경우에 다수의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게 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학원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작으며 일부 청소년들만 다닌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원에서의 체벌 등의 실태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처럼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로 한정해서 조사할 경우 체벌 경험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수원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25%~30%의 학원생들이 학원에서 체벌과 언어폭력을 경험해보았고, 약 12%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원에 등록할 때 체벌 동의서를 받는다는 제보도 있어서, 일부 학원에서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현실이 드러났다.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의 특징은 학원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체벌이나 언어폭력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특정 학원들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학원에서의 반인권적 문화와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설문조사보다는 학원들을 직접 조사하고 단속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체벌과 언어폭력 외에도 학원에서의 쉬는 시간의 문제나 강제로 학습을 시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원이 사실상 강제 학습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강제로 학원을 보내는 문제부터 학원에서 약속한 시간 외에 학습을 강요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 참고자료 : 이전 조사

◎ 2014년, 경기도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빈도 조사

2014년 10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한 것 중 관련 문항에서 경기도 응답자 284명 분석

학원에서 강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빈도 (경기도 응답자, 중고등학생)							
	거의 매일	일주일 에 3번이상	일주일 에 1~2번	한 달 에 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개수	9	13	27	51	40	144	284
%	3.2%	4.6%	9.5%	18.0%	14.1%	50.7%	100.0%

◎ 2013년, 경기도 시흥시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조사

김용익, 「사설 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2013,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논문. 경기도 시흥시 중고등학생 233명 조사

신체 처벌 실태			
매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없다	전체
6.0%	35.6%	58.4%	100.0%

욕설 폭언 실태			
매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없다	전체
5.6%	42.9%	51.1%	100.0%

◎ 2013년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학원에서의 체벌 및 욕설 조사

김영지 외,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8970여명 조사.

표 III-74 체벌 및 욕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86.6	5.3	4.0	2.6	1.5	100.0(8,976)	
성별	남자 83.4	6.1	5.1	3.1	2.2	100.0(4,696)	165.64***
	여자 90.0	4.5	2.8	2.0	0.7	100.0(4,281)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5	6.1	3.5	2.4	1.5	100.0(2,756)	4.9
	중학교 79.7	7.1	6.7	4.1	2.4	100.0(3,128)	
	일반/특목/자율고 93.9	2.6	1.6	1.3	0.7	100.0(2,567)	
	특성화고 92.2	3.8	2.7	0.8	0.6	100.0(525)	
지역 규모	대도시 87.2	5.3	3.7	2.5	1.3	100.0(3,752)	24.969***
	중소도시 86.3	5.1	4.2	2.8	1.6	100.0(4,143)	
	읍면지역 85.3	6.3	4.5	1.8	2.1	100.0(1,0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6.4	5.3	4.1	2.6	1.6	100.0(8,065)	18.611***
	한부모가정 88.4	5.6	2.8	1.8	1.4	100.0(669)	
	조손가정 91.7	4.5	0.0	3.8	0.0	100.0(75)	
	기타 80.9	6.1	6.8	5.3	0.9	100.0(146)	
학업 성적	상 86.0	5.7	4.0	2.8	1.6	100.0(2,714)	41.842***
	중 86.8	5.5	4.0	2.3	1.3	100.0(3,806)	
	하 86.7	4.7	4.0	2.8	1.7	100.0(2,439)	
경제적 수준	상 86.0	5.7	4.1	2.5	1.6	100.0(4,173)	95.869***
	중 86.5	5.1	4.1	2.9	1.4	100.0(3,326)	
	하 88.1	4.7	3.5	2.0	1.7	100.0(1,466)	

* $p<0.05$, ** $p<0.01$, *** $p<0.001$

표 III-75 체벌 및 욕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87.6	5.7	3.2	2.0	1.5	100.0(8,972)	
성별	남자 86.3	5.7	3.6	2.4	2.0	100.0(4,696)	1821.477***
	여자 89.0	5.6	2.8	1.6	0.9	100.0(4,276)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8	5.6	2.7	1.5	1.5	100.0(2,754)	159.834***
	중학교 82.1	7.6	4.9	3.3	2.1	100.0(3,127)	
	일반/특목/자율고 91.8	3.9	2.1	1.3	0.8	100.0(2,565)	
	특성화고 94.2	2.6	1.5	1.0	0.7	100.0(526)	
지역 규모	대도시 87.7	5.7	3.1	2.0	1.5	100.0(3,752)	794.735***
	중소도시 87.5	5.7	3.2	2.2	1.5	100.0(4,140)	
	읍면지역 87.9	5.5	3.7	1.6	1.4	100.0(1,0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4	5.8	3.3	2.0	1.5	100.0(8,062)	737.819***
	한부모가정 91.4	3.2	2.1	1.9	1.4	100.0(668)	
	조손가정 87.9	7.3	4.9	0.0	0.0	100.0(75)	
	기타 83.5	8.0	3.5	3.6	1.4	100.0(147)	
학업 성적	상 87.7	5.9	2.8	1.9	1.7	100.0(2,713)	13.78*
	중 87.4	5.6	3.6	2.1	1.3	100.0(3,806)	
	하 87.8	5.5	3.1	2.1	1.5	100.0(2,436)	
경제적 수준	상 86.9	6.3	3.2	2.0	1.6	100.0(4,171)	161.377***
	중 88.1	5.3	3.3	2.1	1.2	100.0(3,324)	
	하 88.7	4.7	3.2	1.9	1.6	100.0(1,466)	

* $p<0.05$, ** $p<0.01$, *** $p<0.001$

Ⅲ. 토론문: 청소년, 교사, 학부모

‘맞을 만한 짓’은 없다

하루유키 (중학생)

나는 지금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올해 초까지는 미술학원을 잠깐 다녔었지만, 이제는 미술학원도 다니지 않는다.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 나는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학원 친구들의 고민 창구(?) 같은 게 되었는데, 듣다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고민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학원 친구들에 대한 뒷담과,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뒷담으로. 사실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뒷담은 내게는 잘 하지 않지만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 화가 다 치밀어 오를 정도다. 가장 최근에 들은 것 중 하나는 수학학원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였는데, 그 학원에서는 매일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한 범위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뽑아 시험을 본 후 틀린 개수대로 맞는 단다. 만약 숙제를 못 해 간다면 풀지 못한 문제 수만큼 맞는 거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분해 친구에게 당장 신고해 버리라며 난리를 쳤다. 그러자 친구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래...” 였다.

그 때는 화가 잔뜩 났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조금 의문이 간다. 왜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고, 학생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리고, 맞는 누군가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꽤 커다란 문제다. 그것은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 노예에게 했던 행동과 같다. 맞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이러한 체벌이 학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실태조사를 해봐도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받는 체벌이 더 많다고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 체벌을 정당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정작 학원 체벌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학원에서 체벌을 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맞아야만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학원에서 체벌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았거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주로 체벌을 한다. 물론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게 ‘맞을만한 짓’인 걸까? 이 사회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지각을 했다고 신체적 폭력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애초에 맞을만한 짓이라는 것은 없다.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다음부터 늦지 말라거나, 늦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체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체벌은 결코 어떤 것의 촉진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이어져서도 안 된다. ‘맞을만한 짓’, ‘맞을 만한 사람’은 없다.

수원지역 학원에서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원고

정경수 (유신고등학교)

■ 그 끔찍했던 7분의 상황을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있다.

모두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사건이 있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던 한 여성의 전화를 7분간이나 ‘주소와 상황을 똑바로 말하라면서’ 지체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집안 싸움인줄, 흔히 있는 부부싸움인줄 알았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고 우리의 신경체계가 실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이번 학원에서의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교육 속에 아직도 폭력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려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폭력에 대한 정당화, 그 야만적 정당화 자체가 바로 폭력적 구조이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맞는다.’ 라는 것이 이번 조사를 단순화한 내용이다. 이는 학생 신분이라는 억압적 굴레가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언명 속에는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진다. 따라서 학생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 즉, 숙제를 하지 않는 자에는 응분의 처벌로써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학력 숭배, 학력주의는 어찌 보면 ‘능력주의’의 신화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능력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능력주의적 평등의 개념은 능력으로서 학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을 가속시켰고, 정당화시켰다.

따라서 부모, 교사, 학원강사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는 괴물 같은 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폭력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 중 38.2%가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괴물의 논리에 먹혔기 때문이다.

■ 폭력 근절을 위한 ‘단호함’의 부족

학원에서 폭력은 그 동안 허용의 대상이었다. 학교에서의 폭력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보니, ‘별게 아니겠거니’라는 안이한 생각이 학원에서 폭력문제를 ‘허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폭력’근절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 또는 특정 대상을 폭력의 허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 보편적 공간과 시간, 보편적 대상에 대한 폭력행사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습기 찬 집안의 곰팡이처럼 가장 약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곰팡이는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

학교에서 폭력문제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하다고 본다. 학교에서 직접적·물리적 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언어적 폭력과 기합이라는 형식의 폭력 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대상에 대한 폭력에 대해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폭력에 대한 단호한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폭력 근절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폭력이 만연한 학원에 대해서 설립신고 취소 등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해체시켜나야 한다.

폭력 한국 - 부모들은 불안하다.

안기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지금의 청소년.아동들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국민이다. 미성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폭력관련 많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초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수학학원에서 단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장한테 4학년 초등학생이 2개월 가까이 회초리를 맞았고 이 사실을 초등학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지만 해당 부모는 문제를 잘 풀도록 네가 더 노력하라는 행태를 보이며 참다못한 주변의 학생들까지 나서서 결국 세상에 알려졌고 해당 감독을 하는 수원시 교육청도 체벌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만 내린 사건이었다. 교육의 축을 이루고 있는 부모, 시교육청,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학교의 폭력에 대해 학생 상호간 폭력예방, 왕따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학원에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왕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들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서로간의 폭력도 학원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다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문제들이 줄어들까 전전긍긍 하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이다.

교육은 삶은 나누는 것이다. 학원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방치는 안 될 시점에 이미 놓여 있다고 본다.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선생님 보다는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과 호흡하고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원등 사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인권이 교육보다 더 위에서 보장받도록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늦었지만 경기도 단위에 학원 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아이들의 한 부모로서 무척 다행이라 여겨지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권부분이 교육경쟁 속에 묻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IV. 참고자료 : 인권 기준 및 관련 법률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도 학원 체벌이나 각종 인권침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법

지난 9월 말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등에 관한 제도와 대처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에서 가해자는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행동 전반이 해당합니다.

실제로 근래에 학교 교사, 유아 대상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모두

아동학대를 적용받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 직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가 자기 관할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사회 통념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이 모두 해당되지만, 기소 사례들을 보아도 모두 영유아이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사례입니다. 즉 법 적용에 있어서 검경이든 법원이든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청소년들은 아동학대범죄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학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를 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회적인 체벌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이 어떨지는...)

또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학원에서 체벌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나, 같은 학원에서 다른 강사가 학원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강사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3. 국제인권기구에서 언급하는 한국의 체벌 문제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몇 년 간 수 차례에 걸쳐 한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 문제에 대해 모든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 허용된다. (...)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한국은 97%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위원회(HRC) 또한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라고 규정했으며,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은 1997년 보고서에서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학원 체벌(폭력) 설문조사

본 조사는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학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내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인 경우에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안전하게 익명으로 처리되며, 조사 및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10월 3일 ~ 2014년 10월 25일 | 문의 : asunaro@asunaro.or.kr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표본 추출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는 학교 및 연령대	① 초등학교 1~3학년 또는 그 연령대 (8~10) ②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그 연령대 (11~13) ③ 중학교 또는 그 연령대 (14~16) ④ 고등학교 또는 그 연령대 (17~19)
다니는 학원이 있는 지역	① 수원시권선구 ② 수원시영통구 ③ 수원시장안구 ④ 수원시팔달구

1. 최근 1년간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번 이상 ③ 일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아주 가끔
⑥ 전혀 없다

("⑥ 전혀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2번 언어폭력 문항으로 바로 가주세요)

1-1.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을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②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③ 교육청에 신고했다.
④ 경찰에 신고했다. 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냥 넘어갔다). ⑥ 기타(
)

1-2.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신체적 폭력(체벌, 기합 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모님(보호자)이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2. 최근 1년간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번 이상 ③ 일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아주 가끔
⑥ 전혀 없다

("⑥ 전혀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3번 문항으로 바로 가주세요)

2-1.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을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②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③ 교육청에 신고했다.
 ④ 경찰에 신고했다. 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냥 넘어갔다.) ⑥ 기타()

2-2. 학원에서 강사 등에 의해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모님(보호자)이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앞에서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에 모두 '전혀 없다'고 답하신 경우 6번 문항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3.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폭력 중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일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기합 (예 : 옆드려뺨쳐, 팔굽혀펴기, 손들고서있기 등) ② 회초리 ③ 손, 발로 구타
 ④ 꿀밤(머리 때리기) ⑤ 기타()

4. 학원에서 어떤 경우에 자주 신체적 폭력이 이루어집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떠들어서 ②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③ 성적이 떨어져서 ④ 지각
 ⑤기타()

5. 학원에서 어떤 경우에 자주 언어폭력이 이루어집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떠들어서 ②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③ 성적이 떨어져서 ④ 지각
 ⑤기타()

6. 다음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언어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떠오르는 대로 표시해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원에서 신체적 폭력(체벌)과 언어폭력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2) 학원에서 신체적 폭력(체벌)과 언어폭력이 있더라도, 성적향상(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다닐 수 있다.				
3)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겪었을 때, 잘못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				
4)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겪었을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5) 신체적 폭력(체벌)이나 언어폭력 때문에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